

요약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이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학비 환불에 관한 엄격한 교내 규정상 학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학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학비 손실을 보장하는 학업중단위험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국내에서도 학생들의 정신적 불안감 악화 등 건강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품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이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각 대학의 학자금 환불에 관한 교내 규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납부한 학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공립대학의 약 75%와 사립대학의 67%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밝힘¹⁾
 - 미국에서는 학생이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교내 학비 환불 규정상,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학비를 돌려받지 못함
 - 미국 대학 연평균 학비(2020~2021년 기준)는 공립대학(In-state)은 2만 6,820달러, 사립대학은 5만 4,880달러로 높은 수준임²⁾
 - 대학 학비 환불 규정은 일반적으로 연방규정(Federal Regulations)을 준수하며, 이는 학기 시작 후 5주 이내에 학업을 중단할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비율³⁾에 따라 학비를 환불해주고, 5주가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학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할 때 규정상 학비를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보장하는 학업중단위험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학업중단위험 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정신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할 때, 납부했지만 학교 규정상 돌려받지 못하는 학비, 기숙사비 및 기타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함⁴⁾
 - 학비(기숙사비 및 기타 비용 포함)의 전액 또는 일정 금액에 대한 보장 상품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학기 시작 후 첫날까지는 보험계약에 가입해야 해당학기에 대한 보장이 제공됨

1) Forbes(2020. 6. 22), "Tuition Insurance Rescues Lost College Deposits and Payments"

2) NAIC(2021. 9. 22), "Tuition Insurance"

3) 학기 시작 전 또는 수업 첫날까지는 100%, 학기 시작 후 1주까지는 90%, 학기 시작 후 2~3주까지는 75%, 학기 시작 후 4주까지는 50%, 학기 시작 후 5주까지는 전체 학비의 25%를 환불받음

4) Gradguard, covered reasons; <https://gradguard.com/tuition>

- 의료진이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할 것을 권유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소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해야 함. 또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교내 규칙위반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등은 보장받을 수 없음
- 미국의 학업중단위험 보험 전문 보험사인 Gradguard(Allianz Global이 계약 인수)는 미 전역에 걸쳐 약 400여 개의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학업중단위험 보험(Grad Guard Tuition Protection Plan)을 제공함
 - Gradguard는 코로나19 이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지난 2년간 약 4배 가량 증가하였음⁵⁾
 - 평균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보장에 대하여 보험료는 180달러로, 보험요율은 대략 1.06~1.80%가 적용됨⁶⁾

〈표 1〉 미국 주요 학업중단위험 보험상품 개요

보험사	상품명	보장 내용	보장 금액	면책사항	비고
Grad guard	Grad Guard Tuition Protection Plan	사고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학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 또는 일부금액	감염병, 전염병, 기저질환	미 전역 400여 개 대학과 파트너십
Liberty Mutual	Tuition Insurance		학비 전액 또는 일부금액	감염병, 전염병, 기저질환	현재는 서비스 중단 상태
A.W.G. Dewar	Dewar Tuition Refund Plan		학비 최대 75%	자해, 전쟁/핵/방사선 오염	북미 약 1,200개 학교와 파트너십

자료: 각 회사 웹사이트

- 그러나 최근 전미보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는 학업중단위험 보험과 관련하여 면책사항 확인 등 계약 전 소비자의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⁷⁾⁸⁾
 -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위험 보험은 전염병(epidemics) 또는 감염병(pandemics)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보장에서 제외함
 -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등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건강(정신건강 포함) 악화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보장을 제공하였음⁹⁾. 다만, 감염 우려 및 학교의 비대면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에 따른 학업중단은 보장 제외됨
 - 또한, 계약당시 보유한 기저질환(pre-existing medical conditions)에 따른 건강악화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면책사항임에 따라 소비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¹⁰⁾
- 국내 보험시장에는 미국의 학업중단위험 보험과 유사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으나,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정신적 불안감 악화 및 건강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MZ세대인 대학생을 고객층으로 하는 학업중단위험 보험은 그동안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가입 기회가 적었던 젊은층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미니 보험’¹¹⁾과 같이 새로운 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음

5) Inside Higer Ed(2021. 9. 1), “Protecting Tuition in Uncertain Times”

6) Bloomberg(2020. 10. 1), “Tuition Insurance Sounds Great, Unless It Doesn’t Cover Covid-19”

7) NAIC(2021. 9. 22), “Tuition Insurance”

8) The New York Times(2021. 8. 6), “College Tuition Insurance Gains Attention in Pandemic”

9) GradGuard(2021. 2. 12), “GradGuard Tuition Insurance: Covid-19 Update”; <https://gradguard.com/covid-19/tuition>

10) 계약 이전에 치료(medical treatment)를 받은 적이 없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학업중단 시에는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11) 국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2020년 기준)은 717만 6천 원으로 미국 학업중단위험 보험요율(약 1%)을 적용하면 학기당 약 7만 원 수준임